

회사채 수요예측 건수 급감… 신용 리스크·구조적 불안 영향

이달 13건 전망… 전년 절반 수준
금리인하 기대 무너지며 매력 감소
시장선 자금시장 구조적 전환 분석

기업자금조달창구인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무너지며 자금조달 매력도가 낮아졌고, 경기 둔화와 업황 악화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잇따르면서 조달 시장의 경계심이 한층 짙어졌다. 선제 발행을 마친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멈추거나 유상증자 등 대체 수단을 찾는 분위기다. 자금시장 위축은 단순한 심리 요인을 넘어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회사채 수요예측에 나선 기업은 넥센타이어, 한화리츠, 울산GPS, 신한투자증권 등 4곳에 불과했다. 8~22일 사이에도 HD현대, CJ CGV, NH투자증권 등 9곳만이 수요예측을 계획하고 있어, 이달 전체 수요예측 건수는 13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27건) 대비 절반 수준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회사채 시장' 이미지

이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는 지난달 2조1500억원으로, 4월 대비 75.8% 급감했다. 운영목적 발행은 5.6%에 그쳤고, 차환목적 비중은 90%에 육박했다. 자금조달이 줄어들 것을 넘어 '필수적일 때만 한다'는 기업 심리가 확인된 셈이다. 단기사채(CP)와 기업어음발행도 동반 위축됐

다. 지난달 CP 발행은 전월 대비 4.8%, 단기사채는 6.9% 각각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자체보다 신용 리스크와 구조적 불안이 자금시장 위축의 직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부터 정기 신용평정 마무리를 앞두고 비우호적인 업황 중심으로 신용등급 하

향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봤다.

한편, 일부 기업은 유상증자나 주식 발행으로 우회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삼성SDI는 6월에만 1조6549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고, 이 영향으로 전체 주식 발행은 전월 대비 386% 급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증권사들도 우량 기업에 대한 '선별 인수'가 심화되며, 신용등급에 따른 자금 조달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흠플러스 건이 터진 이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BBB급 이하 회사채에 대한 회피 심리가 뚜렷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전에는 금리만 보고 들어오던 리테일 수요가 있었다면 이제는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번 흐름은 단기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자금시장 전반의 심리 변화로 읽힌다. 기준금리 인하 지연, 확장재정 우선, 신용등급 하향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 방어적 태세로 전환한 모습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당분간 위축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7월은 휴가철과 반기보고서 제출 시기가 겹쳐 채권 발행이 줄어드는 시기인데, 올해는 그 전통적인 비수기 요인이 금리·신용 변수와 맞물리며 더 부각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사채 위축 흐름이 단순한 계절적 조정이 아니라, 자금시장 심리의 구조적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남아 있지만, 부동산·가계부채 등 금융불안 요인이 커지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성장'보다 '안정'에 가까워졌다는 해석이다.

한국은행은 5월 기준금리를 2.50%로 낮추며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금융안정 우선 기조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금리 정책이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사이, 자금시장에서는 이미 기업과 투자자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증권사, '삼천피' 날개… 연간실적 전망 好好

위탁매매, 트레이딩 등 수익 개선
빅5, 10%대 영업이익 증가 전망

국내 '빅5' 증권사들이 올해 'A'학점의 영업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이다. 삼천피(코스피지수 3000) 시대가 열리면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리 하락과 글로벌 증시 투자 확대 등으로 트레이딩 이익도 크게 늘었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 '빅5' 증권사의 올해 평균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2331억원이다. 지난해(1조1186억원)보다 10.24% 증가한 것이다.

개별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을 자회사로 둔 한국금융지주의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6.6% 증가한 1조51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각각 전년 대비 5.6%, 1.0% 늘어난 1조2540억원, 1조217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1조1595억원, 1조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6%, 1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 강세가 실적 개선을 이끄는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근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코스피 거래대금은 4거래일 만에 68조6740억원을 찍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번 달 거래대금은 4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 5월 169조6835억원에서 코스피 지수 3000을 찍은 6월엔 288조7960억원까지 불어났다.

주식 매매를 위해 고객이 증권사에

미리 입금해 두는 돈인 고객예탁금도 꾸준히 늘고 있다. 4월 기준 고객예탁금은 65조3840억원이다. 지난 1월에는 70조4133억원을 기록했다.

장영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를 합산한 일평균 거래대금이 5월 20조5000억원에서 6월 33조원으로 급증했다"며 "3분기에는 23조2000억원, 4분기에는 23조8000억원으로 예상돼 기존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법 개정안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 등으로 증시 부양정책이 구체화되면서 하반기에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금리 인하, 채권평가이익 발생, 해외주식 위탁매매 증가, 기업금융(IB) 부문 실적 확대 등도 수익성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원관희 기자 wkh@

흔들리는 테슬라… 투자전략 엇갈려

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TSL·TSLY' 순매수

테슬라 주가가 최근 약세를 보이자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도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가반등을 노리고 테슬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공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옵션 매도로 매달 분배금을 받는 인컴형 ETF를 통해 추가 하락 위험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7월 1~7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디렉시온 테일리 테슬라 볼 2배 ETF(TSL·TSLY)'였다. 순매수 규모는 2억5050만달러에 달했다. TSL·TSLY는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다.

테슬라 주가는 로보택시 출시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8.2% 급등했다가 곧바

로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갈등이 재점화하며 5.34% 급락했다. 이런 급락세에도 일부 투자자들은 주가가 단기에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며 TSL·TSLY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의 수익률을 따르면서 콜옵션 매도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일드맥스 테슬라 인컴 스트래티지 ETF(TSL·TSLY)'도 1143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테슬라 주가가 최근 급락하자 이를 저가매수 기회로 삼으면서도 추가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TSLY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TSLY는 매월 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활용해 분배금을 지급하는 전략으로, 하락장에서 손실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반면 상승장에서 수익은 제한된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리스크와 글로벌 판매 부진으로 인해 300달러 안팎에서 출렁이고 있다.

/원관희 기자

키움증권-국민은행, 전략적 업무협약… 환전 등 서비스 협력

외화 예수금 현찰 인출 서비스 예고

키움증권은 국민은행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양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 기존에 없던 고객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외환 분야에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키움증권은 KB국민은행과 함께 일반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증권사 최초로 외화 예수금을 현찰로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 '달러찾기'



엄주성(왼쪽) 키움증권 대표와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에서 업무 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키움증권

를 이달 중순 내놓는다.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국민은행의 외화 취급 일반영

업점 어디서나 외화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항 지점의 경우 추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확장할 방침이다.

키움증권과 KB국민은행은 이번 외화 현찰 지급 서비스를 시작으로 트래블러스카드, 해외 송금 등 다양한 환전 수요를 겨냥한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은 투자뿐만 아니라 환전까지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최우선에 두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증권, 유엔대용신탁 브랜드 론칭

'헤리티지' 출시… 모둠허 구조 채택

삼성증권은 유엔대용신탁 브랜드로 '삼성증권 헤리티지'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증권의 유엔대용신탁은 고객의 자산 구성에 따라 개별 맞춤 계약이 병행되는 모둠허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금전 자산은 머니마켓 트러스트(MMT), 부동산은 '부동산관리 신탁', 채권은 채권형 신탁 등 자산별 별도 신탁계약이 구성돼 고객이 원하는 방식대로 관

리 및 운용된다. 상속인 지정, 상속 비율, 지급 시기와 조건까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삼성증권 유엔대용신탁은 단지 가족 간 자산 승계를 넘어, 고객의 뜻을 사회에 남기는 '기부신탁'도 갖추고 있다. 고객은 생전 신탁 계약을 통해 특정 병원, 대학, 비정부기구(NGO) 등을 사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전 신탁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생전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원관희 기자